



태권도 정신으로서 ‘세상을 이롭게 한다’란 홍익인간 이념 - 수용론과 비판론을 중심으로 -

김영선*

1. 연세대학교, 강사

요약

목적 이 논문의 목적은 태권도 정신으로서 홍익인간에 대해 긍정적 이해와 이론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홍익인간이 보편타당한 태권도 정신으로 정착하도록 일조하는 것이다.

방법 연구 방법은 철학적 분석이 채택되었다. 세부적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홍익인간 이념은 어떤 내용이며 교육 영역과 사회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둘째, 태권도 정신으로서 홍익인간은 언제, 어떠한 과정으로 도입되었는가. 셋째, 태권도 정신으로서 홍익인간에 대한 찬반양론은 어떠한 쟁점을 갖는가이다.

결과 첫째, 홍익인간은 ‘공동체를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며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한국 고유사상이고 그 교육적 효용성과 더불어 정치, 경제, 산업, 문화 등 사회 전반적인 영역까지 확산되고 있다. 둘째, 태권도 정신과 관련해서 홍익인간은 1985년에 최초로 거론되어 대한태권도협회와 국기원 연구과제나 지도자 연수교재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졌다가 2021년 국기원 『태권도 교본』에 태권도 정신으로 등재되었다. 셋째, 태권도가 추구해야 할 이념으로서 홍익인간이 결점보다 장점이 많아 국기원 태권도 정신으로 채택되었다. 홍익인간은 태권도의 본산지인 한국의 고유사상일 뿐만 아니라 태권도의 교육적 가치를 제고하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결론 홍익인간 이념은 교육적 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태권도 정신의 한 축으로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태권도 정신, 홍익인간, 세상을 이롭게 함, 5대 정신

I. 서론

최근 세계태권도본부 Kukkiwon(2021b)이 편찬한 공식 교본은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는 극기와 홍익인간 이념을 태권도 정신으로 명기하고 있다. 홍익인간은 한국의 특성이 반영된 현행 교육이념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기원과 관련한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과도 얽혀 있다. 태권도의 본산지인 한국이 산출한 태권도에 있어 홍익인간 사상의 영향력과 교육적, 문화적 활용성이 적용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태권도 정신철학으로서 홍익인간을 비롯한 한국 전통사상이 오래전에 편찬된 Kukkiwon(1987) 교본에 수록되었지만 당시에는 그다지 호응을 받지 못했다. 그 교본에는 한국정신문화원 소속의 한승조 교수에 의해 작성된 ‘태권도의 정신철학’이 실렸다. 그는 도(道)라는 차원에서 볼 때 태권도가 한국의 전통사상과 결부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홍익인간, 화랑도 정신 등 많은 전통사상이 태권도 정신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논지는 태권도계에 첨예한 찬반양론을 불러일으켰다. 태권도가 민족 고유의 전통무예이므로 태권도 정신 또한 당연히 한국 전통사상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나름대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태권도 정신은 홍익인간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 NRF-2020S1A5B5A17091782).

* kystae@naver.com

을 비롯한 전통사상을 도입하여 수립되어야 한다는 수용론이 확산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거센 반론들도 적지 않았다. 반대 견해를 표명한 학자들은 전통사상과 태권도와의 관련성에 대해 부실한 논리, 불확실하고 애매한 태권도 연관성 그리고 시대적 부적합성을 들었다. 그러한 비판론은 지금까지도 논문이나 서적의 본문에 언급되고 있다. 전통사상중 하나인 홍익인간 이념 또한 비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못했다.

이러한 비판론의 주된 원인은 홍익인간 이념이 왜, 어떻게 태권도 정신이 되어야 하는가를 규명한 학술적 연구의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그 단적인 예가 인터넷 Google Academic Search와 RISS(Korea Educational Information Service) 검색에서 ‘태권도’와 ‘홍익인간’ 등 두 단어가 함께 제목으로 나온 학술논문이 전무(全無)한 사실에서 나타난다. 더욱이 홍익인간이 본문의 일부로 거론된 학술논문조차도 단 2편에 그치고 있다. 이 2편의 논문마저도 홍익인간 이념은 태권도의 정신철학 주제에서 부분적인 논의에 국한되었다.

그 한 예를 들면 ‘한국의 태권도 사상에 관한 연구(Kwon & Lee, 2013)’이다. 이 연구에서 홍익인간은 풍류도, 화랑도, 선비도 등과 함께 태권도 사상의 원천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한국의 태권도에 내재한 주요사상은 4가지이고 그 중 하나가 홍익인간이었다. 그런데 이 논문은 홍익인간을 다른 여러 사상과 함께 태권도 정신으로 개괄적으로 논의함으로써 태권도 정신과의 구체적 관련성을 밝히는 데 한계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한편 홍익인간을 태권도 정신철학의 일부로 고찰한 학위논문이나 단행본은 10여 건이 나왔다. 그러나 이들조차도 태권도와의 관련성보다는 홍익인간의 의미론, 심신론, 인간 존재론 등의 태권도 외적인 논의에 초점을 두거나 그 개요나 역사철학적 설명에만 그치는 정도였다.

홍익인간은 한국의 고유사상이자 현행 교육이념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사실은 홍익인간이 진부한 전통사상이 아니라 현시대에도 가치 있고 유용한 교육 사상임을 단적으로 알려준다. 태권도의 교육적 역할 차원에서 홍익인간 이념이 학술적인 이론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그 주된 이유는 태권도가 기술이나 신체 발달적 효용성뿐만 아니라 수련자의 정신적 성장과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적 목적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세상을 이롭게 한다(benefiting the world)’란 홍익인간 이념이 태권도 정신에 부합하

는 당위성을 주장함으로써 태권도의 사상성과 정체성 확립에 일조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주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홍익인간 이념은 어떤 내용이며 교육 영역과 사회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가이다. 둘째, 태권도 정신으로서 홍익인간은 언제, 어떠한 연유로 도입되었는가이다. 셋째, 태권도 정신으로서 홍익인간에 대한 찬반양론은 어떠한 쟁점을 갖는가이다.

연구 방법은 주관적 해석에 기반한 질적 연구의 일환인 철학적 분석(philosophical analysis)이 채용되었다. 철학적 분석이란 주제에 관한 유용한 정보나 자료를 검토하고 연구 목적을 충족하는 논리를 전개함으로써 정합성 있는 지식체계를 구성하는 방법이다(Hospers, 2013). 이 연구에는 홍익인간과 태권도 정신 주제의 논문, 서적, 신문, 웹 정보가 논지의 근거로 사용되었다.

연구의 제한점은 태권도 정신으로서 홍익인간을 수용하거나 아니면 반대하는 논리에 대한 주제에 국한되었다. 다시 말해 홍익인간 이념의 어떤 내용이 그리고 어떤 세부적 검토 과정을 거쳐 태권도 정신으로 확립되었는가라는 구성 논리에 관한 주제는 여기서는 제외되었다.

II. 홍익인간 이념의 개요

1. 홍익인간의 유래와 의미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은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는 의미로 통용된다. 홍익인간이라는 말은 『삼국유사』 고조선조와 『제왕운기』 전조선기에서 고조선의 건국과정을 전하는 내용 속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삼국유사』 고조선조에서는 “고기(古記)에 이르기를 옛날에 환인(桓因)의 아들 중에 환웅(桓雄)이 있었는데, 자주 천하에 뜻을 두어 인간 세상을 탐냈다. 아버지 환인이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홍익인간을 할만 하거늘, 천부인 세 개를 주어 내려가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이 삼천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가니 이를 신시(神市)라 하였다”라고 전한다. ... 후략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22.11.23.)

홍익인간 이념을 전하는 단군신화의 내용은 간략하지만

‘공존하여 공동체를 행복으로 이끌어 주는 사람’을 이상형으로 설정했음을 알 수 있다. 홍익인간 교육이념의 지향치는 ‘공동체를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며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인간’이다(Choi, 2017).

홍익인간은 1945년 12월 교육의 기본이념으로 채택되었고 4년 후 정부 수립 후 「교육법」이 정식으로 제정되었다. 이후 홍익인간 교육이념은 여러 차례 개정되어 현행 교육기본법 제2조에 다음과 같이 명기되어 있다.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Choi, 2017).

홍익인간을 최초로 도입한 백낙준은 “홍익인간은 결코 편협하고 고루한 민족주의 이념의 표현이 아니라 인류공영이란 뜻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정신과 부합되는 이념입니다. 또한 ‘우리 민족정신의 정수’이면서, 기독교의 박애정신, 유교의 인(仁), 그리고 불교의 자비심과도 상통하는 모든 인류의 이상이기도 합니다.”라고 역설했다(Jeong, 2000).

홍익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인본주의나 인간존중, 복지, 사랑, 봉사, 정의, 민주주의, 공동체 정신, 평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듯 인간의 행복을 위한 인본주의와 함께 봉사하는 삶을 추구하는 이타주의적 윤리관이 홍익인간에 내재되어 있다(Jeong, 2016).

동양철학자 김용옥은 홍익인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풀이했다. “홍익인간이 말하는 인간이란 ‘사람’을 뜻하는 명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의 사이(間)가 얽혀서 형성되는 인간 세상, 즉 휴먼 소사이어티(Human Society)를 의미합니다. 홍익(弘益)에서 홍(弘)은 고정된 실체적 의미가 아니라 쉽이 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과정속에서 부단히 아(我)를 간(間)속에서 확대하여 간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존재가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모든 사이(間)의 사회적 존재들에게 끊임없이 그 ‘이로움에 함’을 넓혀간다는 뜻입니다”(Joong-Ang Daily Newspaper, 2000. 02.25.).

홍익인간의 의미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나(我, me)’가 아니라 ‘우리(we)’가 되어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인 계와 향약, 두레, 품앗이와 같은 전통은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이

어져 왔다(Choi, 2020.10.21.).

홍익정신이 한국 사상의 뿌리라는 근거는 한국의 고유 정서인 ‘정(精)’에서 찾아질 수 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은 도와주고 강한 사람에게 대항하는 개인적인 정에서 의병, IMF 금 모으기 운동, 태안 기름유출로 인한 자원봉사의 집단적인 정은 세계 어디서나 찾아보기 힘든 한국인 특유의 정서이다. 남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DNA가 홍익인간 사상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Kim, 2020).

2. 홍익인간의 교육적 전개

교육이념으로의 홍익인간은 교육이 길러야 할 인간상을 제시한 것이면서, 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홍익인간할 수 있는’ 덕성과 역량을 가진 인재를 교육이 길러야 한다는 뜻과 함께, 교육은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활동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Jeong, 2020).

홍익인간이 교육 영역에서 전개되는 양상은 다양하다. 국내 우수한 대학교는 홍익인간의 명칭을 도입하거나 사상을 계승하여 대학의 교육이념으로 지정하였다. ‘홍익’을 학교 이름으로 붙인 홍익대학교는 홍익인간의 건학이념에 따라 인재를 양성한다고 표방한다(Hongik University, 2022.12.22.). 단국대학교의 창학 정신은 민족애와 조국애에서 발원하여 민족의 정통성으로 단군의 홍익인간 정신을 고양한다(Dankook University Homepage, 2022.02.18.).

또한 경희대학교는 교시(敎示)인 ‘문화 세계의 창조’를 통하여 ‘홍익인간의 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건학이념으로 삼고 있다. 건국대학교, 한양대학교, 영산대학교도 글로벌 공동체의 영위를 위해 홍익인간을 적용한 건학이념을 채택하고 있다(Media Incheon Newspaper, 2020.05.18.).

홍익인간 교육이념과 관련해서 미국 하버드대학교 동아시아 언어문화학 박사인 Pastreich(2015) 교수는 “홍익인간 정신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며 그 깨달은 가치를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 국가, 그리고 이 지구를 위해 쓰라는 것이다. 이 이념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모두를 위해 그 가치를 사용할 수 있는 홍익인간 정신을 가르치는 방식을 도입한다면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게 되고 성적만을 위한 교육이 아닌 새로운 교육문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주창했다.

이러한 홍익 사상을 고양하고 실천하려는 사회 운동이

있다. ‘홍익사회 실현을 위한 교수 모임’은 청소년 자살, 학교폭력, 사교육 등 학교 문제를 해결하고, 현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300인 교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육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나부터 얼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인식에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자는 대국민 호소문을 공표하였다(Newsis, 2012.11.29.).

홍익사상의 고양에 역행하는 사례도 있었다. 최근 국내 한 정당이 ‘홍익인간’을 법정 교육이념에서 삭제하려는 시도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강력한 반대 여론이 일자 결국 개정안 발의가 철회되었다. 특정 종교 연구소가 교육부에 제출한 보고서가 그 발단이 되었다. “홍익인간 이념이 교육지표로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며 모호하다”라는 결점을 부각시켜 폐지안을 거론했다가 극심한 반발로 인해 무산되었다(Chosun Daily Newspaper, 2021.04.26.).

3.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는 홍익인간

홍익인간 사상은 한국의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산업, 문화 등 사회 전반적인 영역까지 확산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얼이 깃든 민족의 구심체이자 한국철학의 정체성에 그치지 않고 인류 평화와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홍익인간을 표방하는 것은 더욱 의미 있는 작업이 아닐 수 없다(Kim, 2016). 여기서는 홍익인간 사상이 다른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태권도 정신과 관련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25시』의 저자 Gheorghiu는 1986년 프랑스의 한 잡지에 다음과 같이 홍익인간을 평했다.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은 최대 행복을 의미한다. 세계 모든 인간의 최대 행복을 뜻하는 이상이며 물질과 정신을 포괄한 초월적인 이념이다.” 그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이 낳은 홍익인간 이념이 태평양 시대에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제3의 물결』로 잘 알려진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도 “한국이 다가올 미래에 중심이 된다.”라고 공감했다(Kim, 2007).

정치 영역에서도 한국인은 홍익인간 사상을 자각하고 세계를 변화시켜야 할 위치에 있다. 한국인은 평화통일을 위한 새로운 비약을 앞두고, 인류사의 새로운 대변혁의 시기에 맞추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나갈 것이다. 한국의 국가원리인 홍익인간은 세계 공생(共生)의 지평을 여는데 주축이 될 것이다(Kim, 2018).

홍익인간 사상은 경제 이론과도 접목되었다. 방황하는 서구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유불도의 동양철학이 아니라 경

제 개념이 함의된 홍익인간 사상이라는 견해가 있다.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였던 심백강은 유불도의 동양철학에는 경제 개념이 없어 대안으로 미흡하고 새로운 상생 문명을 창출하는 홍익인간 사상이 대안이라는 논지이다. 사익(私益)과 공익(公益) 양자의 조화를 강조하는 홍익경제이론이야말로 경제와 도덕이 공동 발전하는, 인류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정신적으로 행복한 시대를 열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한다(Maeil Daily Newspaper, 2022.09.05.).

홍익인간 사상이 동양의 전통사상과도 다르고 서구 사상과도 구별되는 독창적인 점이 있다. 홍익인간의 ‘익(益)’은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 개념이고 ‘홍(弘 넓힐 홍)’은 ‘널리 이웃과 더불어’라는 도덕 개념이다. 경제와 도덕을 두 축으로 삼아 인간사회를 더불어 잘사는 사회로 영위해 나가는 것이 홍익인간 사상이 지향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다(Han, 2021.05.01.).

한국의 경제성장에도 홍익인간 사상이 원동력이 되었다는 논지가 있다. Kang(2016)은 광복 후부터 국정 주역들이 지속적으로 홍익인간 이념에 입각한 국민 교육을 추진해 인적자본을 쌓아 올렸고 지금의 우리 사회 모습은 그 결과라고 해석한다.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거치면서 세계 최빈국에 지나지 않았던 하찮은 나라가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지금의 부(富)와 민주주의까지 쟁취할 수 있었던 이유가 홍익인간 사상에서 비롯되었다는 논리이다.

국내 유명 통신업체 대표는 “5G 혁신이 21세기 홍익인간 정신을 실현하는 가치”라는 메시지를 표방했다. 5G는 진정한 모바일 실시간 커뮤니케이션과 동시에 생명 구조와 제조업 패러다임 및 사회 산업적인 변화가 홍익인간 정신과 상통한다는 취지였다(Korea Finance, 2019.02.25.).

이와 관련해서 『Hongik-Ingan Thought and Information & Communication』 서적을 펴낸 Kim(2007)은 “새로운 세상의 도래”라는 인터넷 정보통신 매체가 갖는 지향점이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점에서 홍익인간 사상에 합치합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앞서가고, 우리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향한 변혁의 주체로 나서는 것도, 우리 민족의 가슴에 흐르는 홍익인간 사상과 정보통신의 맥이 같기 때문입니다.”라고 서술했다.

현대 정보화시대(the Information Age)에서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홍익인간의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오늘날에는 누구나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정보를 폭넓게 전파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 SNS의 효과와 부작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개인의 행동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현대 문명은 인간이 인간을 복제해 낼 수 있고, 과학이 인류를 단번에 파멸시킬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기에, 올바른 인성의 함양이 주요한 관심사로 부상되었다(Joh, 2007).

문화 분야에서도 홍익인간이 거론된다. Kim(2020)은 자신의 저서 『The Hongik-Ingan of K-Culture』에서 K-문화가 잠시 스쳐 가는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음악, 영화, 드라마, 게임, 스포츠 등 한류 문화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K-방역까지 세계의 찬사를 받은 바 한국문화의 저력이 세계 널리 떨치는 원인 중의 하나가 홍익인간 사상에서 기인한다고 역설했다.

이제 홍익인간은 한류 문화의 핵심 사상으로서 한국인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넘어서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세계적 파급 효과를 올릴 수 있으리라 예견된다. '공동체를 생각하고 남을 존중하고 정의롭고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홍익인간이 구현하는 인간상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직위가 높아진만큼 그에 따른 의무를 갖는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도 홍익사상에 포괄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홍익인간 가치를 내건 우리나라 사람들의 내면적 성찰과 실천적 행동이 요구된다. 고위층 인사들의 무책임한 언행, 보수와 진보 진영의 첨예한 충돌, 사회에 만연한 구조적 부패, 극렬한 집단 이기주의, 적대적 노사 관계, 같은 국민끼리 파멸적인 지역 감정과 지역 차별, 이성(異性) 및 세대 갈등 등 사회 전반적인 부정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홍익인간 정신이 등불이 되어 이 같은 폐단들이 한층 완화되길 기대한다.

Ⅲ. 태권도 정신과 홍익인간

1. 태권도 정신으로서 홍익인간의 도입

태권도 정신으로서 홍익인간을 논의하기에 앞서 태권도 정신 정립의 발단이 되었던 '태권도 5대 정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5대 정신'이란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이다. 1959년 국제태권도연맹(ITF)의 전 총재인 최홍희가 자신의 저서인 태권도교본에서 최초로 수록하였다. 이후 5대 정신은 간단명료한 장점 때문에 지금도 태권도인들이 활용하고 있다(Kim, 2011a).

그러나 5대 정신이 오래 전에 주창된만큼 태권도의 위상

과 지식 체계가 발달한 지금에 와서는 여러 결함이 노출되었다. 그 한계성은 다음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태권도의 대의명분인 이념의 부재이다. 둘째, 정신 개념이 사회적 덕목과 정신력으로만 설정된 점이다. 셋째, 예의, 염치 등 용어가 의미상 연결되는 중복성이다. 넷째, 인내, 백절불굴 등 정신력 요인에 치중한 문제이다. 즉 '5대 정신'에는 세계적 위상을 확보한 태권도가 지향해야 할 이념은 빠져있고 태권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 규범과 정신력 요인에 국한되었다(Kim, 2021).

이 같은 5대 정신을 대체하는 명실상부한 태권도 정신론 개발이 대한태권도협회와 국기원에 의해 착수되었다. 태권도 정신의 대안으로서 홍익인간은 1980년대부터 학술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홍익인간을 비롯한 한국 전통사상을 태권도 정신에 반영하려는 노력은 각종 연구 성과물에서 지속적으로 제안되었다. 그러한 내용은 태권도 정신과 철학에 관한 교재, 학술 및 학위 논문, 단행본 서적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중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등 공식 기관 차원에서 추진한 태권도 정신 주제의 연구로 한정하여 홍익인간에 초점을 두어 중점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홍익인간이 태권도 정신으로 정착하기까지는 1985년을 기점으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랜 논의 과정이 소요되었다. 홍익인간은 국기원이 주관한 제1회 세계태권도학술발표회에서 '한국전통사상과 태권도'라는 제목으로 Hahn(1985) 교수에 의해 최초로 거론되었다.

그는 한국의 태권도는 단순한 격투기술의 차원을 넘어서서 전통사상을 계승 발전하여 그 맥락에서 태권도의 도(道)와 정신을 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즉 태권도는 무술로서만이 아닌 무예로서의 철학적 정신세계가 내재된 우리 겨레의 고유한 전통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그 내용으로는 천신숭배사상, 홍익인간과 재세이화, 경천애인(敬天愛人), 선도(仙道) 및 불교 사상, 화랑도정신, 충효정신, 호국정신, 조선 성리학의 이기(理氣) 철학, 지행합일의 실천적 윤리사상, 동학사상, 천도(天道)사상 등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갖가지 전통사상이 시대별로 요약되었다.

홍익인간을 비롯한 전통사상은 '태권도 정신의 근원적 사상' 또는 '철학적 배경'으로 명명되었다. 그리고 교본에 실린 단락의 제목은 '태권도의 정신철학'이었다. 즉 그러한 내용이 태권도 정신이 아니라 원류에 관한 철학적 고찰이란 뜻이다. 이 논지는 4쪽 분량으로 Kukkiwon(1987) 1차 교본에 등재되었다. 수정증보판인 2차 Kukkiwon(2005)

교본에도 제목과 본문 내용이 그대로 수록되었다.

이 같은 정신철학에서 태권도가 한국의 대표적 무예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려면 한국 전통사상을 태권도 정신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되었다. 그러나 갖가지 추상적인 전통사상이 몸으로 행하는 운동이자 무예스포츠인 태권도와 실질적으로 결부되기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1998년 태권도 정신 개발이 착수되어 대한태권도협회 주관으로 공식적인 과제가 수행되었다. ‘태권도 정신에 관한 연구’란 제목으로 그 내용에 홍익인간이 다음과 같이 서술되었다.

‘한(韓) 철학적 원리에 대한 이해와 예절교육 등이 동반된 태권도 수련은 삶에 대한 적극성과 타인에 대한 이해심 즉 홍익인간의 정신을 길러준다. 한 철학의 구성요소인 천지인(天地人)에서 지(地)는 홍익인간 곧 박애와 평화 사상을 뜻한다(Ahn, 1998).’

그러나 홍익인간은 태권도의 본질과 연결시킨 ‘한 철학’의 하위 부분으로 간략히 서술되는 정도에 그쳤다. 즉 당시 수립된 ‘한 철학’ 사상을 근간으로 태권도 수련의 결과로 인해 생성되는 태권도 정신은 평화, 애국, 충효, 예의, 부동심, 극기, 준법, 호연지기 8가지로 파악되었다(Ahn, 1998).

이어 2006년 ‘태권도 정신에 관한 연구’가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에 의해 수행되었다. 여기서 홍익인간, 화랑도 정신, 선비 정신 등 한민족 고유의 정신이 근원이 되어 태권도 정신이 추출되었다는 논리가 전개되었다.

태권도 정신의 구성요소 중 하나가 조화정신이고 세계의 모든 인종 간에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는 홍익인간이 매개체가 된다. 무인이 통치했던 고대에도 우리의 조상들은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사상을 바탕으로 국가를 다스렸다(Lee etc, 2006).’

그 결과 태권도 정신은 극기, 예의, 평화, 조화 4가지 대표적 정신 항목과 함께 다음 3개 영역과 15가지 세부 조목으로 구분되었다. 첫째, 태권도 동작과 기상에서 비롯되는 정신은 정직, 극기, 신동, 중절, 정의이다. 둘째, 태권도 예절과 규칙에서 나타나는 정신은 애국, 충효, 예의, 준법, 평등이다. 셋째, 태권도 도복과 상징에서 나타나는 정신은 평화, 조화, 합일, 창조, 약속이다(Lee etc, 2006).

그러나 이때까지도 홍익인간은 정식 태권도 정신으로 규정되지 않았고 태권도 정신의 역사철학적 근원 또는 역사

적 배경으로 국한되었다. 한편 개인 차원에서도 학술 및 학위 논문이나 단행본 서적에서 홍익인간과 단군신화가 거론되었지만 태권도 정신과 관련한 의미와 구체적 연결성이 미흡한 논리가 대다수였다.

2. 홍익인간 수용론

태권도 정신으로서 홍익인간을 채택하는 이론을 여기서는 ‘홍익인간 수용론’으로 칭하기로 한다. 홍익인간 수용론은 여러 연구자들의 학술적 관심과 태권도 정신 수립 열정에 힘입어 점차 확산되었다. 이들의 노력으로 홍익인간은 태권도 정신과의 연결성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홍익인간과 태권도 정신과의 관련성이 서술된 내역을 살펴보기로 한다.

Ha(1992)는 석사논문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태권도 정신과 홍익인간과의 관련성을 다음 세 가지로 연결지었다. “첫째, 홍익인간의 윤리적 정신은 태권도인이 중요시하는 예의의 근본이 된다. 둘째, 홍익인간에 깃든 상대를 배려하는 선타후아(先他後我)의 미덕은 태권도 수련에서 자만이나 이기심을 배제하는 행동 기준이 된다. 셋째, 인도주의적 홍익 사상에 근거하여 태권도 경기는 합의된 선의의 경쟁이고 부정을 배격하는 정정당당한 경쟁이다.”

Kim & Kwak(2000)은 「한국전통사상을 통한 태권도 정신의 정립」 논문에서 ‘단군사상과 태권도’에 대해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는데 홍익인간 사상에 잘 나타나고 있다. 우리 문화가 단군의 홍익인간 사상을 계승함으로써 오늘날 태권도는 극기와 백절불굴의 정신과 관련성을 맺게 되었다.”고 서술했다.

Ha, Cho & Choi(2012)는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이 발주한 연구과제 「올림픽과 태권도」에서 홍익인간에 근거한 ‘태권도 솔리다리티(solidarity, 단합)’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올림픽 활동을 확산하고 전 인류의 합심단결을 도모하지는 취지가 바로 홍익인간의 정신과 매우 흡사하다. 태권도는 홍익인간의 정신 아래 구체화된 우리의 문화적 산물이다. 이러한 홍익인간 사상이 태권도에 녹아들었는지 태권도는 현재 어려운 국가에 도움을 주는 선두 문화로 자리 잡았다.”

Kwon(2013)은 박사학위 논문에서 홍익인간의 태권도 정신적 관련성을 풀어냈다. “홍익인간은 교육이념이자 실천강령의 원천으로서 수련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측

면에서 태권도의 주요사상이 될 수 있다. 즉 홍익인간은 민족의 이상임과 동시에 어느 한 개인의 성취에만 국한되지 않는 시민의식과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이념이 구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홍익인간과 태권도 정신을 결부시킨 다양한 논지가 제안되었다. 홍익인간 등 전통사상을 태권도 정신과 연결시킨 연구는 태권도의 정신적,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세계적인 무예스포츠이자 국기(國技)인 태권도는 당연히 한국적 특징과 장점을 갖춘 사상적 기반이 절실히 요청되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태권도인의 인격 함양과 또는 인성교육의 소재로서 정신적 바탕과 명확한 행동 규범을 확립하는 것은 중차대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홍익인간은 풍류도, 화랑도, 선도, 선교와 불교, 선비사상, 성리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한국사상의 한 줄기에 불과했다. 또한 전통사상과 태권도의 관련성을 접목하는 수준이었고 홍익인간이 함의한 정신성과 태권도 수련과 활동과는 거리감이 있었다. 단지 태권도 정신과 관련한 전통사상에 대한 의미 탐색이나 태권도 정신의 역사철학적 근원이나 배경에 국한되었다.

2011년이 되자 홍익인간 수용론은 국기원 지도자 연수교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국기원 1-2급 지도자 연수교재에 나온 '태권도 정신론'에서 홍익인간은 비로소 태권도 정신으로 규정되었다. 연수교재에서 홍익인간은 삼재강유, 심기일체와 함께 태권도의 이념으로 그리고 하위 5가지 덕목(德目)은 예의, 인내, 용기, 공평무사, 호연지기로 설정되어 삼도오덕(三道五德)으로 칭해졌다.

삼도오덕론은 정신의 개념 구분이나 구성 원리에서 기존의 이론과는 차별화되었다. 학자나 지도자의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 달라지는 정신의 개념이 이념과 기타 정신요인으로 이분화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다. 즉 태권도 정신은 '사물의 근본적인 의의나 목적'을 의미하는 이념과 함께 여타 덕목과 정신력 요소가 합쳐져서 두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서 홍익인간은 태권도 정신에 포함되어 태권도 수련의 의의와 목적성을 의미하고 태권도의 원대한 대의명분으로 배경되었다(Kim, 2011b).

하지만 삼도오덕론은 정신 개념의 혼재성과 복잡성, 이분화된 정신 영역의 무관련성, 각 정신 요소간의 부조화성 등이 결함으로 지적되었다. 그 문제점은 4년 후 국기원 용역과제인 「태권도 정신체계에 관한 연구(Kim, Song &

Choi, 2015)」에서 보완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5대 정신을 비롯한 태권도 정신에 대한 사례와 연구를 검토하고 면접 조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극기와 홍익의 태권도 정신과 함께 관련 덕목을 문장으로 표현한 5개 신조가 설정되었다.

이 연구과제에서 홍익인간은 '세상을 이롭게 함'란 명제로 '나를 이김'의 극기와 함께 태권도의 이념이자 정신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수 년후 홍익인간은 「태권도 교본 편찬을 위한 착수 연구(Kukkiwon, 2020)」와 「태권도 교본 편찬 설계 연구(Kukkiwon, 2021a)」를 거쳐 국기원(2021b) 공식 『태권도 교본』에 명실상부한 태권도 정신으로 등재되었다. 그 이유는 홍익인간이 태권도의 대의명분으로 적합한 이념일 뿐만 아니라 태권도의 교육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3. 홍익인간 비판론

'세상을 이롭게 한다'란 홍익인간이 태권도 정신으로 간주되기까지는 여러 학자의 반론도 적지 않았다. 1987년 '태권도 정신철학' 제목으로 홍익인간을 비롯한 각종 전통사상이 국기원 교본에 실리면서 비판적 기류도 조성되었다. 기존의 5대 정신을 대안으로 거론된 '전통사상'은 여러 학자들의 다각적인 비판에 직면했다. 홍익인간 등 전통사상이 태권도 정신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언급된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Kim(1989)은 대한태권도협회 기관지에 다음 논지를 피력했다. "한국 고유사상이나 동양고전에서 나오는 홍익인간 같은 철학적 어휘를 태권도 정신에 결부시키는 것은 억지 논리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추상적이고 모호한 관념은 태권도 수련 영역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Yang(2002)은 “지나친 국가주의 색채, 거창한 종교적 내용, 군대 문화의 흔적 등을 비판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기술과 수련의 맥락에서 도출될 수 있는 실천적 정신의 모색이 중요하다. 전통사상의 태권도 도입은 점차 강해지는 개인주의 경향, 그리고 상대주의적 가치관의 대두 등 문화사상적 흐름을 고려할 때 시대적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Ryu(2006)는 “국기원 교본에 나온 태권도 정신철학은 갖가지 전통사상과 덕목들을 나열함으로써 구체적이거나 실제적이지 못해서 오히려 집약되는 정신성의 실체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Jeon & Lo(2012)는 “국기원 교본은 정신사적 의의에서 ‘태권도 정신’을 규정한다. 그러나 갖가지 전통사상들은 태권도와 연관이 빠져 있기 때문에 ‘태권도 정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전통사상이 태권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스며들었는지를 확정하기란 쉽지 않다.”라고 피력했다.

Kwak(2014)은 “교본에 제시된 태권도 정신은 종교 색채나 유교 사상에 기초한 충효와 호국사상 등 종법주의적 사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 정신론은 오늘날의 인간관과 사회문화의 일반적 흐름과는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Kwak & Cho(2016)는 “태권도 인성교육 대상자인 현대 아이들은 개성이 강한 직업을 더 선호하며 ‘아이돌(idol)’ 가수나 배우를 꿈꾸는 아이들이다. 이런 아이들에게 기성세대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주입한다는 것은 오히려 반감만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반론이다.

Im & Seok(2021)은 “국기원 교본에 나온 전통사상은 봉건시대의 민족주의와 일제 강점기 때 잠식된 일본식 무도교육의 잔재로 이러한 맹목적인 무도적 관념이 결코 이 시대에 요구되는 정신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여전히 회자되고 있는 이 같은 사상이나 규범은 태권도 정신의 후진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이러한 반론들은 홍익인간 등 전통사상을 태권도 정신에 적용하는 것이 설득력이 부족한 무리한 논리라는 주장이다. 비판론의 쟁점은 홍익인간 교육이념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반론에 맞물려 태권도 맥락상의 문제점이 합쳐진 복잡성을 띤다. 비판의 요지는 다음 넷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홍익사상 교육이념에 대한 일반적인 쟁점으로서 고대 신화에 근거한 발상, 과도한 이상주의와 추상성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즉 홍익인간 이념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현장 교육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자립도 어려운데 이타주의는 성인군자가 아닌 다음에야 실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해당된다(Han, 2005).

둘째, Kukkiwon(1987) 이전 교본에 실린 ‘태권도 정신 철학’ 내용 자체의 부실성이다. 부실성의 원인은 태권도 교본에 갖가지 전통사상의 나열하면서도 4쪽에 못 미치는 짧은 분량이었던 점이다. 또한 18년 후 수정증보판 Kukkiwon(2005) 교본에도 그 내용이 그대로 게재됨으로써 그 부실성이 지속되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교본의 ‘정신철학’ 단락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필요하다. ‘태권도 정신철학’이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내용은 ‘태권도

정신에 관한 철학’을 논한 것이다. ‘태권도 정신이 이러한 것이다’라는 문제에 대한 해결안이 아니라 ‘태권도 정신으로 삼을 수 있는 근원으로서 한국 전통사상으로는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정도로 설명한 것이다. 하지만 갖가지 전통사상과 고답적인 종교 색채를 띤 어휘를 나열하는 정신 내용은 전통사상의 진부성이 두드러짐으로써 오히려 거부감이 증대되어 태권도 정신과는 괴리감을 갖게 하었다고 본다.

셋째, 전통사상과 태권도 정신을 결부시킨 연결 논리학의 부적합성이다. 교본의 본문에 나온 전통사상은 20여 종에 달하면서도 정작 태권도와의 관련성은 전혀 서술되지 않았다. 대신 한국 역사에 존재했던 갖가지 윤리 도덕적 어휘를 소개하고 철학적인 해설로 채워져 있다. 비단 교본 뿐만 아니라 전통사상과 태권도 정신의 관련성을 다룬 여러 후속 연구들도 그러한 양상을 보였다. 전통철학적 근거에 대한 설명은 장황하지만 정작 태권도와 관련된 내용이 개략적이고 모호한 수준에 그친 사례가 많았다.

넷째, 홍익인간이 원천적으로 민족주의적 경향의 단군사상과 종교적 성향의 선도(仙道)나 대종교와도 연결되는 편파성을 띤 수 있기 때문에 태권도 세계화의 이념에 위배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이 반론도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다. 홍익사상의 민족적 편향성은 다소 결함도 될 수 있으므로 그 장단점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어떤 사상이든 편파적 사상성과 종교적 입장에 얽히게 되면 공동의 관심사에서 탈피한 맹목적인 경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민족적 우월 의도가 투영된 자부심은 스스로 국수주의(國粹主義) 테두리에 갇힐 수 있기 때문이다. 미사여구의 용어로 장식된 민족 사상적 우월성, 단군사상의 종파주의, 그리고 신비주의적 선도 수련법 등은 경계해야 할 세부 사안이다(Kim, 2011b).

홍익인간이 태권도 정신으로 온전히 뿌리내리려면 이 같은 비판적 견해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그 보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즉 홍익인간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해소하는 주도면밀한 설정 방식과 설득력 있는 논지가 필요하다. 그 주된 요지는 홍익인간이 태권도와 어떤 구체적 연결성을 갖는가 하는 점이다. 홍익인간과 태권도와의 구체적인 상관관계가 논리적으로 해명된다면 부정적인 비판론은 감소할 것이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엄밀한 후속 연구가 따라야 한다. 다음 단락에 나오는 제언에서 서술되었듯이 후속 연구는 정신 용어 개념부터 선행연구 분석, 정신 구성 원칙까지 면밀히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이 논문은 홍익인간 이념이 태권도 정신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개진하였다. 그러기 위해 서두에서 홍익인간이 한국의 교육이념으로 어떻게 정착되었는지 논의하였다. 아울러 태권도 정신으로서 홍익인간이 도입되는 과정과 함께 찬반양론도 검토하였다. 즉 홍익인간에 대한 수용론과 비판론에 대해 그 개요부터 세부적 쟁점까지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검토하고 본 연구자의 견해를 밝혔다.

태권도 정신의 핵심 내용으로서 홍익사상은 그 수용론 못지않게 비판적 견해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익인간은 결점보다는 강점이 두드러졌기에 최근 국기원 공식 태권도 교본에 '세상을 이롭게 한다'란 태권도 정신으로 수록되었다. 그것은 마치 치열한 논쟁 과정을 통해 홍익인간이 현재 한국의 법정 교육이념으로 제정되었던 과정과도 유사하다.

태권도 정신으로서 홍익인간 이념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인식과 가치는 물론 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다. 그러나 홍익인간의 교육적 유용성이나 사회 영역에서 다양하게 전개되는 활용성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홍익인간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해안과 통찰력이 발휘되도록 요청된다. 그 주된 이유는 홍익인간은 한국 고유사상이면서 인류 공영을 지향하는 이념성을 갖는 태권도 정신일뿐만 아니라 인격 함양을 추구하는 태권도 교육에도 합치되는 적절한 사상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이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다음 3가지 주제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홍익인간이 어떤 세부적 원칙이 반영되어 태권도 정신으로 확정되었는지 그 상세 원칙과 내용에 관한 것이다. 홍익인간을 태권도 정신으로 삼아야 한다면 태권도와 어떤 구체적인 관련성을 갖는가 하는 점에 대해 명확히 설명되어야 한다. 둘째, 교본에서 홍익인간의 실천적 덕목으로 설정된 예의, 정의, 봉사 덕목이 홍익인간과 왜,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태권도 현장에서 구현되는 실천적이고 실증적인 사례들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태권도 정신으로서 홍익인간의 가치나 의의(意義)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규명되어야 한다. 홍익인간을 일반적으로 찬양하는 문구로 장식된 설명문이 아니라 학술적으로 치밀한 검토와 분석을 채용한 논증이 산출되어야 하겠다.

References

- Ahn, Y. K. (1998). Unpublished Report book, A Study on The Taekwondo Spirit, Special Committee on Research and Development of KTA, 5.
- Choi, C. H. (2020.10.21.). Hongik-Ingan and Anarchism. Joongdo News Daily paper <http://www.joongdo.co.kr>
- Choi, M. H. (2017). The Ideal Characters of the Hongik inganbased Educational Thoughts and the Future Direction of Education in Korea. *Journal of Dangun Studies*, 37, 281-311.
- Chosun Daily Newspaper (2021.04.26.). After a survey of only 21 people, the proposal to delete Hongik-Ingan from the Basic Law of Education was made.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1/04/26/MRIKOZOYGFDDH HWU6BFBWIF4HQ>
- Dankook University Homepage. Retrieved February 18, 2022, <https://www.dankook.ac.kr/web/kor/-33>
- Google Academic Search. Retrieved December 1, 2022, <https://scholar.google.co.kr>
- Ha, T. E. (1992). A Study on the Korean Traditional Thoughts and Taekwondo Spirit.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 Ha, W. Y., Cho, J. H & Choi, K. K. (2012). Taekwondo and Olympics. Basic Textbook of Taekwondo 5. Kukkiwon & Taekwondo Promotion Foundation, 217-219.
- Hahn, S. J. (1985). Korean Traditional Thoughts and Taekwondo. A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in The 1st World Taekwondo Semianr, Kukkiwon, 5-13.
- Han, B. S. (2021.05.01.). The idea of Hongik-Ingan is an alternative to the new civilization philosophy of mankind. Todayan News. <https://www.todayan.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816>.
- Han, K. E. (2005). A Research on the Ideology of Education in Korea. Pajoo: Korean Academic Information Publishing. Hongik University Homepage. Retrieved December 20, 2022, <https://www.hongik.ac.kr/contents/www/cor/philosophy.html>
- Hospers, J. (2013). An Introduction to Philosophical Analysis. 4th Edition, Kindle Edition, Routledge.
- Im, S. J. & Seok, R. (2021). Introduction to Taekwondo. Seoul: Sang-A Publishing, 130-131.
- Jeon, B. S. & Lo, Y. S. (2012). The Spirit of Taekwondo from the Viewpoint of the Implementation of Eastern Traditional Thoughts. *Journal of Korean Culture*, 22, 119-141.
- Jeong, Y. H. (2000). Hongik-Ingan Ideology and 21st Century of Korea. *Journal of Dangun Studies*, 2, 171-197.
- Jeong, Y. H. (2016). The Humanism of Hongikinkan(弘益人間) Idea. *Journal of National Culture*, 64, 111-149.
- Jeong, Y. H. (2020). Hongik-Ingan idea and its present mean-

- ings Hongikinkan(弘益人間) Idea. *Journal of Dangun Studies*, 42, 99-142.
- Joh, J. H. (2007). Reflecting the Study Trend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Hong-ik-in-ghan in view of the Information Age. *Journal of Gojoseon & Dangun Studies*, 17, 157-182.
- Joong-Ang Daily Newspaper (2000.02.25.). The last course of Professor Kim Yong-ok's 'Laotzu and 21st Century' is broadcast on the newspaper. <https://www.joongang.co.kr/article/3883147#home>
- Kang, J. M. (2016). Hongik Kukburon. Seoul: Yulgok Publishing.
- Kim, K. J. & Kwak, J. H. (2000). A Study for the Philosophical Thesis of Taekwondo Spirit. *The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9(1), 3-14.
- Kim, K. L. (2016). The Universal Age, the Hongik-Ingan and the Role of Korea. *Journal of Peaceology*, 6(2), 79-103.
- Kim, K. S. (2020). The Hongik-Ingan of K-Culture. Koyang: The Road Publishing. 4-13. 274-275.
- Kim, Y. G. (2007). Hongik-Ingan Thought and Information & Communication. Seoul: Wooyong Publishing. 18-19.
- Kim, Y. S. (1989). A Search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Theory of Taekwondo Spirit. *KTA Quarterly Taekwondo*, 69, 133-140.
- Kim, Y. S. (2011a). A Detailed plan for establishing the Official Taekwondo spirit of Kukkiwon. *Taekwondo Journal of Kukkiwon*, 2(1), 7-15.
- Kim, Y. S. (2011b). A Training Textbook for the 1st & 2nd class Taekwondo masters. Seoul: Kukkiwon.
- Kim, Y. S. (2021). A Critical Acceptance Perspective on the 5 tenets of Taekwondo advocated by Choi Hong-Hi. *Taekwondo Journal of Kukkiwon*, 12(1), 1-10.
- Kim, Y. S., Song H. S. & Choi, J. G. (2015). A Study on The System of Taekwondo Spirit. Unpublished Report Book, Seoul: Kukkiwon.
- Kim, Y. U. (2018). Counter-attack of History. Seoul: Max-media Publishing.
- Korea Educational Information Service. RISS(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https://www.knsu.ac.kr/knsu/uni/curriculum09.do>.
- Korea Finance (2019.02.25.). CEO Hwang, Chang-gyu emphasized, "5G innovation is the practice of Hongik-Ingan in the 21st century." https://www.ftimes.com/html/view.php?ud=20190225120646113255469ec131_18
- Kukkiwon (1987). Kukki Taekwondo Textbook. Seoul: Samhoon Publishing. 39-42.
- Kukkiwon (2005). Taekwondo Textbook. Seoul: Osung Publishing. 56-60.
- Kukkiwon (2020). Unpublished Report book - A Study on the Initiative for the Compilation of Taekwondo Textbook.
- Kukkiwon (2021a). Unpublished Report book - A Study on the Compilation Design of Taekwondo Textbook.
- Kukkiwon (2021b). The Understanding of Taekwondo. Taekwondo Textbook 1. Seoul: Myungjin C&P. 84-104.
- Kwak, J. H. & Cho, S. K. (2016). Past, Present and Future for Taekwondo Spirit. *Philosophy of Movement*, 24(4), 263-286.
- Kwak, T. Y. (2014). The Practical action Spirit of Taekwondo Technical and Architecture. *The Korean Journal of Sport*, 12(3), 87-96.
- Kwon, H. J. & Lee, D. G. (2013). A Study on the Thought of Korean Taekwondo. *Philosophy of Movement*, 23(2), 235-268.
- Kwon, H. J. (2013). A Study on the Thought of Korean Taekwondo.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67-68.
- Lee, K. S., Lee, S. H., Han H. J., & Ahn Y. K. (2006). A Study on the Taekwondo Spirit. Unpublished report book. Taekwondo Promotion Foundation.
- Maeil Daily Newspaper (2022.09.05.) Dr. Shim Baek-gang said, "The solution to the wandering capitalism is the founding ideology of Gojoseon 'Hongik Ingan'." <https://news.imaail.com/page/view/2022090515531235012>.
- Media Incheon Newspaper (2020.05.18.). Kyung-Hee University opened... "Implementation of Hongik-Ingan Ideology". <http://www.media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787>
- Newsis (2012.11.29.). 300 Professors Launched a Meeting of Professors to Realize a Hongik Society.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4853144?sid=102>
- Pastreich, E. (2015). Another Republic of Korea that only Koreans don't know. Paju: 21st Century Books Publishing. 218-222.
- Ryu, B. K. (2006). A Study on Mentality of Oriental Martial art. *The Journal of Korean Alliance of Martial Arts*, 8(2), 41-62.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Retrieved November 23, 2022, <http://encykorea.aks.ac.kr>.
- Yang, J. B. (2002). Possibility and Theoretical Foundation of Taekwondo Philosophy. *The Korean Journal of Martial Arts*, 4(1), 57-73.

Hongik-Ingan Ideology of 'Benefiting the World' as a Taekwondo Spirit - Focusing on the Theory of acceptance and criticism -

Kim, Young-Sun¹⁾

1. Yonsei University, Lecturer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help Hongik-Ingan settle into a universally valid Taekwondo spirit by strengthening a positive understanding and theoretical basis for Hongik-Ingan as a Taekwondo spirit.

Method Philosophical analysis was adopted as the research method. The detailed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Hongik-Ingan ideology and how it is used in education and social fields? second, when and how Hongik-Ingan was introduced as a Taekwondo spirit? and third, what issues do the pros and cons of Hongik-Ingan as a Taekwondo spirit have?

Results First, Hongik-Ingan is a unique Korean idea that fosters "people who think about the community, care for others, and practice sharing and service," and its educational effectiveness is spreading to the overall areas of society such as politics, economy, industry, and culture. Second, regarding the spirit of Taekwondo, Hongik-Ingan was first mentioned in 1985 and was partially covered in the research project of the Korea Taekwondo Association and Kukkiwon, and was listed as the spirit of Taekwondo in name and reality in the 2021 Kukkiwon Taekwondo textbook. Third, as a Taekwondo spirit, advantages were emphasized rather than defects for Hongik-Ingan, and it was adopted as the Taekwondo spirit of Kukkiwon.

Conclusion In that the ideology of Hongik-ingan has educational value and can be used in various areas of society, Taekwondo people need to actively accept this as an axis of the Taekwondo spirit.

Keywords Taekwondo spirit, Hongik-Ingan, 'benefiting the world', 5 tenets of Taekwondo

논문투고일: 2023.01.30.

논문심사일: 2023.02.14.

심사완료일: 2023.03.16.

논문발간일: 2023.03.30.

